

이라크 정치·경제 동향과 시사점

1. 정세 현황

□ 정치적 안정 진행중

- 이라크 정국은 '11.12.20 미군 철수 완료 직후 이슬람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순니파와의 종파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
- 2014년 예정된 총선이 향후 이라크 정국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긴 하나 종파나 정파간 극단적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중
- 말리키(Maliki) 현정부의 다양한 종파와 정파간 이해관계를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이끌고 갈수 있는가가 중요

□ 외국과의 관계개선

- 2012년 3월 바그다드에서 '아랍연맹 정상회의' 개최, 2012.9 영국 William Hague 외무장관 방문을 통한 관계개선 협의 등 점차 정상국가로의 움직임 활발

- 이라크 정부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좋으며, 드라마 '허준' 방영도 추진되고 있어 이라크 전체에 한류바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

2. 경제 현황

□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전망

- 2011년 9.6% 성장, 2012년 12.6%, 2013년 10.2%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
- 2012년중 원유생산량은 300만 b/d를 초과하여 전쟁 이전 생산량을 이미 회복하였으며, 원유수출 증대로 외환보유고도 약 600억불로 여유가 있는 편
- 장기적 원유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일부 조사기관은 2017년경 이라크의 1인당 GDP가 10,000불을 상회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

□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가동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 증가예상

- 이라크 정부는 지난 9월 이라크 재건을 위해 2013~17년 5년간 2,500억~2,75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며, 여기에는 주택, 농업, 산업, 교육,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망라됨
 -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(77.5억불)과 Shell사의 바스라 석유화학공장 건설(약 100억불) 사업을 이라크 정부의 동 재건계획 실행예로 삼고 있음
 - 이라크 정부는 원유 증산 및 판매 제고를 통해 동사업의 비용을 대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
국제 에너지기구(IAEA)의 분석

- 향후 10년간 국제원유 증산량 45%를 이라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
- 2030년경 이라크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석유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아시아 시장의 핵심 원유공급국이 될 전망

○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라크의 치안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고 재건설시장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진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

- 건설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터키는 최근 정치적 이유(순니파의 하시미 부통령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체포영장 발부, 고등형사법원의 쫓겨간 사형선고 등으로 하시미를 지지하는 인접국 터키와 갈등)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

○ 한국산 가전에 대한 높은 선호

- 이라크 국민은 저가의 중국제품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삼성이나 LG 제품을 선호
-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전자제품 수출액이 2010년 70백만불에서 2011년 4억불로 증가하였으며, 금년에도 6억불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높은 증가세 기록

3. 시사점 및 전망

○ 현재 이라크는 여전히 치안불안과 투자재원 확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나 이라크 정부의 높은 경제개발 의욕을 갖고 있어 향후 시장전망은 긍정적

- 특히 지방정부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활발히 추진
 - 자치정부는 25억불까지 중앙정부 승인없이 투자유치 전결권을 갖고 있음

- 이라크 기진출 우리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여타 사업수주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등 아직 미국, 일본 등의 진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대이라크 진출 확대에 시장선점의 효과를 유지할 필요